

현해탄을 잇는 二洋의 고품위 고분자 응집제

- 二洋화학주식회사 편 -

■ 편집부

환 경보전이란 대명제 아래 소명의식을 갖고 출발한 젊은 회사가 있다는 소식이 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어 새해 벽두에 찾아가 보았다.

바로 동양화학의 계열사이며 '87년 12월 1일부터 YANGFIOC이란 상품명으로 고품위 고분자응집제를 생산하고 있는 이양화학주식회사(대표·김광선)이다.

EYANG'S GO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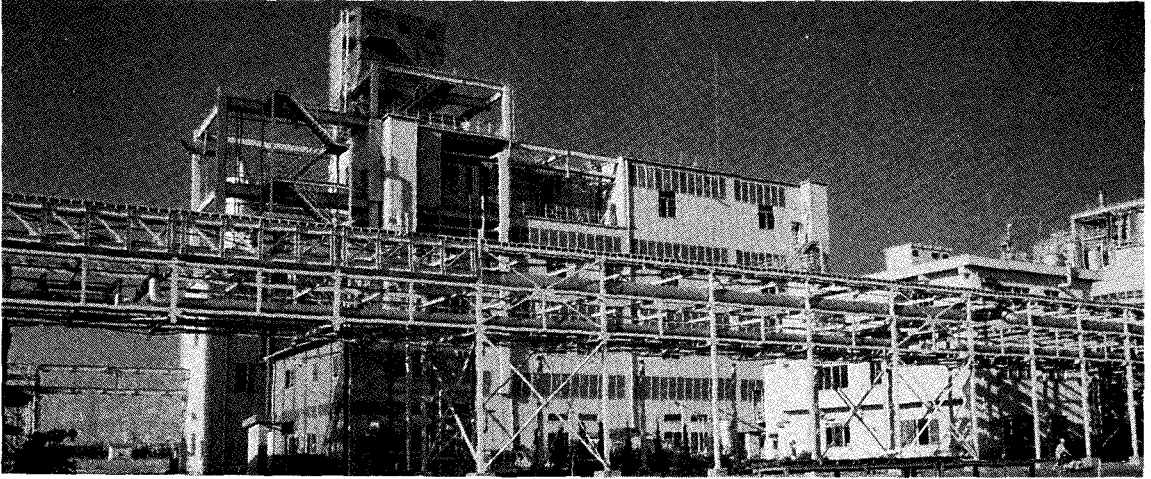
- Excellent quality
- Young company
- Advanced management
- New research & development
- Good service

각 문장의 이니셜을 이어 만든 EYANG은 글자 그대로 보다 나은 환경을 이루기 위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진보된 기술을 보급하는데 그 경영목표를 두고 있다.

同社は 국내 굴지의 화학약품 생산업체인 동양화학과 일본 최대의 고분자 응집제 제조업체인 삼양화성과의 기술 및 자본합작회사로서 '86. 9월에 설립되었으며 '87. 3월부터 울산시 여천신공단내 만 삼천평 부지위에 약 80억원을 투자하여 년산 오천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동년 12월부터 제품생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국내의 고분자 응집제는 거의가 일본에서 수입 사용해 왔는데 이양화학이 '87. 7. 1의 수입 다변화조치 훨씬 전부터 이런 현실을 탈피하고자 고심해오던중 고품위 고분자 응집제의 국내 생산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기존 수입상들이 대표적인 grade만 수입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틀에박힌 grade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업계 현실에서 벗어나 각양의 폐수처리장에 맞는 광범위한 제품을 공

◇ 공장전경 ◇



급하므로써 응집제 선정이나 투입량등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현재 생산중인 품목은 하·폐수처리용 CATION계 20종, ANION/NONION계 20종을 비롯하여 정수·상수용(Potable Water grade) 5종이며 모든 수처리의 부유물질 제거에 넓게 응용이 가능해졌고 특히 국내 최초로 정수·상수 품목이 생산되어 현재까지 유산반토나 PAC 등으로 대량 투입하여 처리하던 것을 본 응집제를 사용하여 소량투입으로도 많은 양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양화학(주)는 생산제품의 다양화에 따른 효과적인 처리 방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여 소비자를 위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TSE(Technical Service Engineer) 제도이다. 본사와 공장 및 지방의 대리점에 TSE가 상주하고 있어 당사 제품의 품질조사, 고객불만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고객이 의뢰하는 성능평가시험, 기술

지도 등의 상담을 하고 있으며 기동성 있는 이동 실험 차량을 이용하여 제품의 품질보증 및 고객의 편의에 앞장서고 있다.

응집제의 원료가 되는 폴리아크릴 아마이드는 아직 국내에서는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92년 이후엔 국내생산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이양의 50여종에 달하는 모든 응집제는 품질면에서 백퍼센트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제품 이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가히 고품위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품질관리와 영업을 맡고 있는 박 원우과장의 말이다. 이양화학의 응집제는 현재 반월의 피혁단지와 국내의 수질 1종 사업장의 30퍼센트정도에 납품을 하고 있고 현재는 15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의 응집제 수요량은 대략 3천톤 정도인데 이양의 울산 공장이 전면 가동되는 '89년 즈음에는 역으로 현해탄 건너 일본에, 그리고 미국 등지로 수출도 할 예정으로 되어있어 외화획득에도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0번지(동양화학빌딩11층)
代表電話 : 757-0761 番 FAX : 757-0765